



치어비스 입대이트

까스까다 마을의 마리아 자매. 2년간 설교자가 없어 폐쇄했던 교회문을 다시 열자 얼마나 즐거워하던지...

결혼 풍습



개혁성경학교 졸업생 이사가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가 봅니다. 아직 19살밖에 안된 젊은이는 짝을 찾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곳 결혼 풍습을 알려 드립니다.

결혼식이 있기까지는 적어도 2번함을 신부댁에 바쳐야 한답니다. 예를 대신 설탕, 쌀, 등등의 음식거리를 잔뜩 보급함으로 색시를 장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셈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일단 데이트 승락 그리고 결혼승락을 받고나면 먼저 재판관 앞에 법적 결혼식을, 이후 교회에서 두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소에서 '라소'라 하여 둘의 목에 거는 밧줄이 눈길을 모읍니다. 밧줄의 의미를 설명하는 우리네 풍습과 달리 이들은 밧줄에 꿰뚫인 둘의 관계를 강조하지요. 또한 금동전을 신부에게 선물로 건네주며 부귀영화하자고 서로 약속합니다. 젊은 부부를 축복합니다.



지난 7월 출장로교회 노회에서 우리 가정은 눈물을 뿌렸습니다. 1500미터 산등성에 자리한 교회에서 노회의 작별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노고와 사랑을 칭찬하며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떠나며 남기는 빈자리를 채우게 될 에프렌과 멜리나 부부(은누리 신학교 졸업)가 노회에

정식인사를 드림으로서 적잖은 은혜 또한 나누었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작별

습니다. 타이밍의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행하시는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멕시코 다른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단기간동안 지도자양성을 위한 교육사역하기를 새끼손가락걸며 약속하였습니다.



훈훈한 동역자 모임

ALPREPA라 칭하는 빨레게 장로교협회는 그동안 '하나 되기'를 목표로 여러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마음을 털어 놓는 친구가 되었지요. 터놓고 지낼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쁨과 같이 아픔까지도 서로 나눌수 있는 관계로 많이 성숙하였습니다. 특히 저희와는 마치 친형제처럼 따르는

세사리오 장로... 개인적 친분까지도 두터워 졌습니다. 아래 사진은 앞줄 왼쪽에 에스라장로, 베드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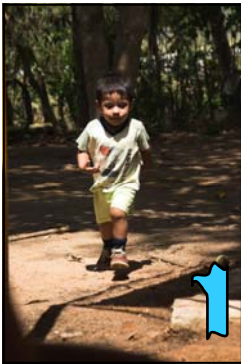


에벨 장로, 그리고 뒷줄 왼쪽에 세사리오 장로, 아달실료 목사, 알렉한드로 목사, 그리고 베드로 형제와 제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매번 부활절과 종교개혁 주일을 연합예배로 드리고, 새해부터 여름행사를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로 인해 내 교회 울타리에서 이웃교회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방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에 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저들을 기도중에 담아주십시오.

* 같이 * 기도 해 * 주 세 요 *



태권도 사범으로 깨끗한 운동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아버와는 상대적으로 약한 몸을 가진 알리(사진 1)는 혈루증이라는 병명에서 벗어나 거의 정상아이처럼 지냅니다. 신유기도를 올려준 글로발교회에 감사말을 전하는 아이의 엄마의 눈에는 눈

물이 대롱대롱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2)처럼 청순하고 소박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에프렌과 멜리나 (3) 부부가 이삿짐을 싣고 후아레스를 떠났습니다. 앞으로 장기사역에 임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선교의 시작으로 효과적 사역, 옹은 열매, 그리고 좋은 평가를 기대합니다.

미국행 불법의 길(4)은 잠시도 쉽습니다. 얼마전엔 중국인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멕시코 횡단으로 시작되는 남미인의 시도와 바다넘어 목숨건 아시아인의 담대함... 매일 뉴스로 접합니다. 이민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저들도 마음이 찢어진답니다. 안타까운 속사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들의 삶을 주님께 여쭙어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먼저 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일년동안 학교를 다니게 될 나영(초

등3), 나단(초등1), 나훔(유치)! 어느곳을 가든지 활짝 웃는 그들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1.800.346.0075
www.crwmm.org

Rev. Abraham & Elaine Lee
Palenque, Chiapas, 29960 Mexico
abe@nanana.org (이성수 목사)
Elaine@nanana.org (이은희 사모)
www.nanana.org



Christian Reformed World Missions